



선교사역의 동역자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50 :23)

그동안도 주님의 은혜 중에 평안 하신지요?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어 올해를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게 됩니다. 모든 상황속에서도 세계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신 동역에 감사드리며, 멕시코 선교지 소식을 전합니다.

1. 티후아나 벤엘 선교교회 사역.



점점 세속화 되고,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는 환경들을 접하며, 성경공부와 기도와 예배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하며, 영적성장을 위한 양육과 돌봄이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가정교회(목장)사역"에 중점을 두고 개인별 성령의 은사 발견을 위한 설교와 성경공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메르신도(Gumersindo)목사를 사역자로 세우고, 루이스목사와 함께 목회와 훈련 사역에 동역하며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 벤엘선교교회의 "가정교회(목장)사역"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섬김과 동역을 통해 순조로이 정착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2. 선한목자 국제 신학교 사역.



첫번째 졸업식 후에 신학교 행정과 커리큘럼을 재조정 하였고 새 학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과정은 6개월을 단축하여 3년으로 조정하였고, 새로운 커리큘럼에 맞춰서 모든 강의를 PPT를 통한 시청각 교육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 국경도시의 팍팍한 경제환경으로 인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일터로 나가는 목회준비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 후원에 동역해 주세요.
- 신학교에 재학중인 목회자들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400개의 어린이 성탄선물이 준비되도록 동역해 주세요.

3. 단기선교팀 방문과 사역.

팬데믹 이후 "티후아나를 방문하는 일일 선교팀"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 일일선교로 방문하던 교회들의 숫자가 교회 사정들로 현저히 줄어 들었습니다.
- 티후아나의 현지교회의 성도 수가 많이 줄어 들었고, 토요일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토요 전도사역"의 참여와 열심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 2년동안 값싸게 수입된 중고 자동차로 인해, 주말이 되면 가족들이 바닷가나 쉼터로 빠져나가 “토요일 도시선교 동원사역”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사람들의 성향이 현실 우선주의로 바뀌면서, 복음과 영적인 삶에 대하여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 점점 닫혀져 가는 마음의 문들이 예수복음의 능력으로 열리기 하시고, 목회자를 격려하고 교사들을 세우는 단기선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4. 감사와 기도 제목

감 사: ❶그릿 시넷가 선교사 수련회를 통해,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해 주셔서 감사.
 ❷ 7년만에 칠레 산티아고를 방문하여 31년전 선교사로 첫 걸음을 시작한 장소들과 동역자들을 방문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확인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

- 1) 루이스목사(아나-사모)와 구메르신도목사(베아프리스-사모)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협력하여 교회와 일군을 세우는 동역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 2) “가정교회(목장)사역”을 통해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고 기도하며, 영적성장을 이루어 가는 양육과 돌봄이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 3) 선한목자 국제신학교의 커리큘럼과 시청각 PPT 자료 업데이트가 잘 마무리되며, 목회 준비생들을 위한 장학사역에 동역의 손길을 보내주시도록.
- 4) 신학교에 재학중인 목회자들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400개의 어린이 성탄선물이 준비되도록 동역해 주세요.
- 4) 선교사로서 3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집필중인 선교현장이야기 원고가 잘 마무리 되어 책으로 출판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선한 발걸음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멕시코 티후아나 시에서 박영완, 정기영선교사 드림
Timoteo Y W PARK